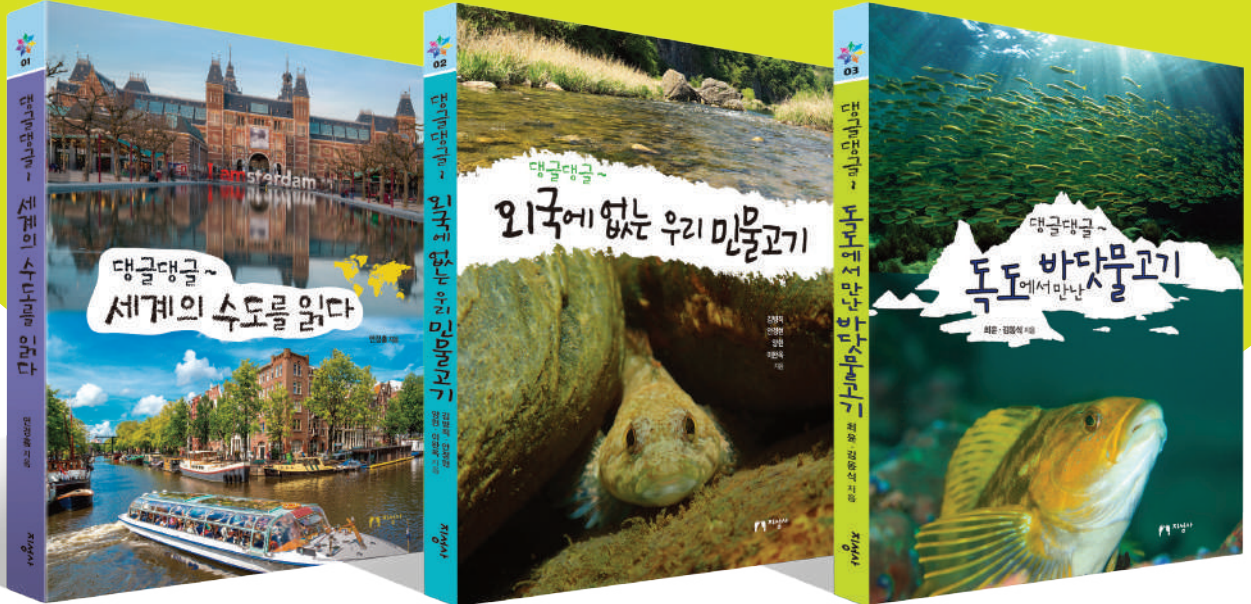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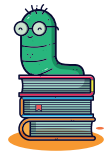
초등 교육 과정에서 보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급문고용 도서를 소개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과정에서 '아날로그' 수업, 즉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읽는 것을 회피하려 하니, 곤혹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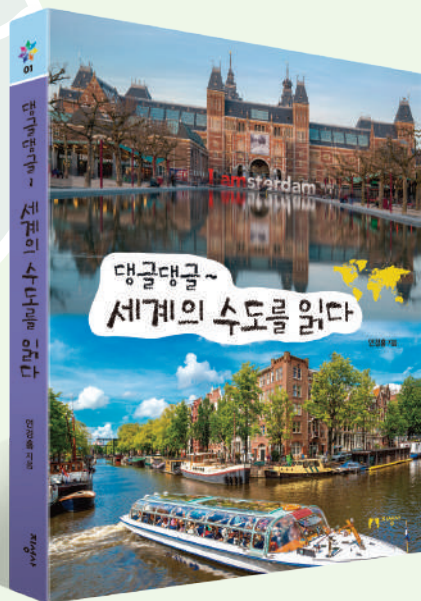
디지털 형태의 책은 보는 것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책은 '읽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책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아날로그 형태의 책읽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저희 출판사에서는 '시각적 인식', 즉 이미지를 읽는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최대한 전달하려는 뜻에서 책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즉, 가로 23센티미터, 세로 29.5센티미터의 판형에 사진의 생생함을 살려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소재들로 가려 뽑아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출간된 책은 『댕글댕글~ 세계의 수도를 읽다』, 『댕글댕글~ 외국에 없는 우리 민물고기』, 『댕글댕글~ 독도에서 만난 바닷물고기』로, 모두 3종입니다.





01 댕글댕글~ 세계의 수도를 읽다

세계의 수도를 만나기에 앞서 해당 나라의 국기와 지구상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를 마주합니다. 그 지도에서 그 나라의 땅 모양이 어떤지, 어디에 수도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도의 풍경을 담은 멋들어진 사진과 함께 수도의 유래와 역사, 문화를 정리한 글로 수도를 읽습니다. 곁들여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덧붙이는 글을 배치하여 지리·문화적인 교양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연경흠 지음 | 342쪽 | 30,000원 (ISBN 978-89-7889-4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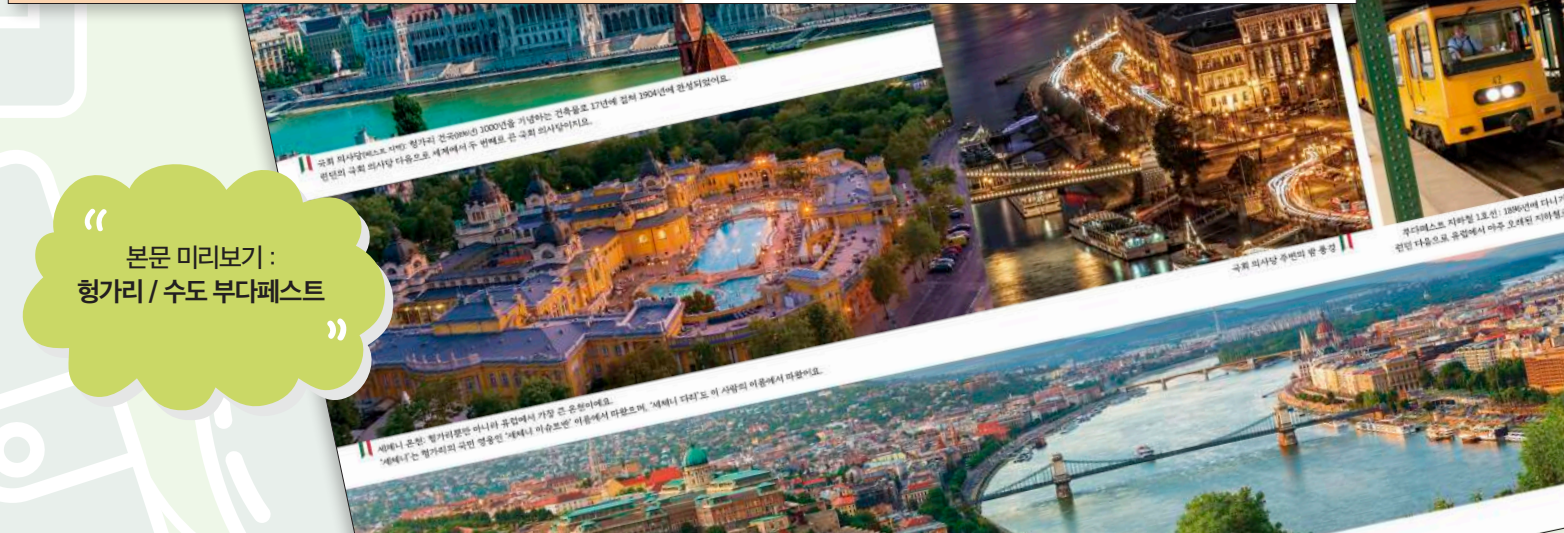


실 미슈르반 데실립(미슈르반)이 있는 도성. 헝가리에 가을만큼 최고로 벨아를린 초대 국왕 미슈르반 1세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성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찾을 수 없다.

- ≡ 초기 켈트족이 살았던 이 마을은 2세기경 로마 군대가 머물면서 도시로 발전했으며, 9세기경 이곳에 헝가리 민족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경에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에 침략되어 1541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 ≡ 1849년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세케니 다리가 세워졌고, 1879년 도나우강 서쪽의 부다(Buda)와 오부다(Obuda), 동쪽의 페스트(Pest)가 합쳐져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다는 존족의 통치자 아틸라의 황제인 '찰레타'의 이름에서, 페스트는 '최하급 중급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도나우강이 흐르고 있어 '도나우의 강주', '도나우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죽음방, 레코에도 이 빵이 유명하지만, 헝가리에서 이 빵을 처음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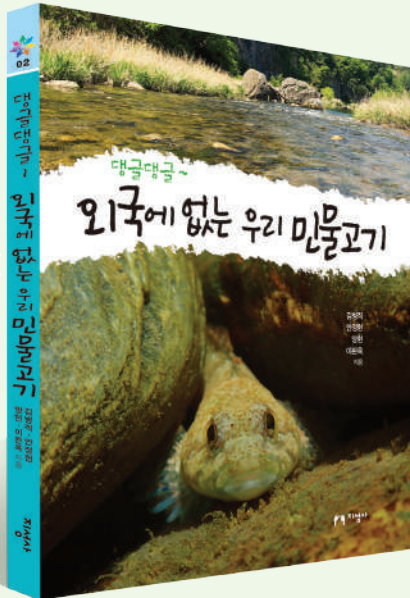
국회 의사당(레코에도)은 헝가리 건국 이래 1000년을 기념하는 건축물로 17년에 걸쳐 19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원형의 국회 의사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회 의사당입니다.

국회 의사당 주변의 한 풍경

부다페스트 지하철 1호선 1986년에 다니기 시작한 다음으로 유럽에서 아주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세테니 문전,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전입니다. '세테니 다리'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세테니'는 헝가리의 국민 영웅인 '세테니 미슈르반' 이름에서 따왔으며, '세테니 다리'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 본문 미리보기 : 헝가리 / 수도 부다페스트 ”



02 땡글땡글~ 외국에 없는 우리 민물고기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57종을 소개한 이 책에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가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강줄기 곳곳을 누비면서 필자들이 직접 찍은 200컷이 넘는 물속 생태 사진과 각 개체의 표본 사진에서 인식의 감도가 다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개체의 이름 유래, 형태와 생태 특징, 사는 곳 등, 물고기 박사님들이 들려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병직·안정현·양현·이완옥 지음 | 184쪽 | 23,000원 (ISBN 978-89-7889-459-3)

영어표

한강납줄개

Rhodeus pseudohieracius Arai Joon and Uehi, 2001
 영어 이름 Hangang bitterling
 몸길이 5~9cm
 ■ 일종 위기 야생 생물 Ⅲ급

수컷
암컷
산란준

내 이름은 '한강납줄개'. 한강 물줄기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은 이름입니다.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사는 납줄개와 같은 종으로 귀급되어 오다가, 새로운 종임이 밝혀졌습니다.

입수염이 없고, 옆줄이 몸의 앞쪽에서 끝나며, 특히 수컷의 몸 옆면에 청록색 피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지요. 암컷은 오렌지색 산란관을 이용하여 작은납줄개의 몸 안에 알을 낳습니다.

한강, 충남의 대청천, 무원천의 중·상류에 분포합니다. 물이 맑고 잔잔하며, 바닥에 자갈과 돌이 깔려 있는 물풀이 우거진 곳을 좋아합니다.

한강납줄개는 볼 손톱이 약간 나란 곳을 물어뜯어 먹물 주머니를 형성해서 숨어 살거든요.

한강납줄개 암컷과 수컷 암컷보다 수컷의 몸 색깔이 훨씬 화려해요. 다른 물고기들보다 머리 크기에 비해 눈이 큰 편이며, 조금 앞쪽에 붙어 있어요.

26 27

“ 본문 미리보기 : 한강납줄개 ”



03 땡글땡글~ 독도에서 만난 바닷물고기

우리의 해양영토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가는 과정이 무척 험난한데다 시간 제약도 뒤따라 늘 그리움으로 가득 찬 섬, 독도입니다. 이 책은 독도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독도, 그 푸른 바닷속에서 필자들이 직접 사진에 담고 관찰했던 물고기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찬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바닷속을 누비면서 물고기들을 만난 당시의 현장과 분위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점이 돋보입니다.

최 윤·김동식 지음 | 216쪽 | 25,000원 (ISBN 978-89-7889-458-6)



저울베도라치 | **칭베도라치과** | 학명: *Entomacrodus stellifer* (Jordan and Snyder) | 영어 이름: Spotted rockkipper, Spotted blenny

깊은 초록빛을 띤 갈색 몸에 깨알 같은 흰색 점들이 흩어져 있어요. 깊은빛을 띤 푸른색 가로띠가 일곱 줄 있지요. 뒷입술 가운데에 볼니 모양으로 피부가 뾰족 튀어나왔어요. 머무들기, 콧구멍과 눈 위쪽으로 뻗어있는 생김새가 매우 조치가 작아 한 발이었어요. 이름은 건리남도 발안에서 그대로 따왔는데 유래는 알 수 없어요. 몸 옆의 가로띠가 예전에 쓰던 손저울의 눈금을 닮아 붙었다고 하지요. 영어 이름은 말하철에 총총한 벌이라는 뜻으로, 몸몸에 흰색 점들이 가득한 모습에 빗대었어요. 바위가 많은 얕은 해안에서 자라지요. 우리나라 동해와 제주도뿐 아니라 남해안, 일본, 중국, 타이완 바다에 살고, 몸길이는 약 12센티미터까지 자라요.



때때로 치는 피부뾰족을 굳혀 조수 물장미와 독도 선착장의 부채바위 조수 물장미에서 만났어요. 치를 씹어 넣는 습성이 있거나 물장미에서 볼 수 있지요.

콧구멍 위에 뾰족과 눈 위에 뾰족 한 쌍이 동해 속 정남구렁이 물고기 같아요.

“ 본문 미리보기 : 저울베도라치 ”